

하구둑 없는 섬진강·수어천

## 토종생물의 보고



하구둑 없는 섬진강과 광양의 수어천은 토종생물의 보고(寶庫)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 섬진강과 광양 수어천 하구역에서 미기록종인 염새우류 5종과 멸종위기 1·2급 애생동물 8종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종은 ▲노랑부리백로 ▲호사비오리 ▲말뚱개 ▲알락꼬리마도요 ▲붉은발말뚱개 ▲독수리 ▲흰목불새새 ▲기수갈고등 등 멸종위기 8종이다. 이번 조사와 제2차 전국자연환경 조사, 겨울철조류 동시센서스에서 관찰된 흑기러기·큰고니 등 조류 9종을 합하면 섬진강 및 수어천 하구역 멸종위기 동식물은 총 17종에 달한다.

섬진강 하구역은 바닷물 출입이 자주롭기 때문에 ▲붉은발말뚱개 ▲일본 재첩 ▲기수우렁이 등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기수(汽水) 지역의 고유한 생물상이 그대로 잘 나타나고 미기록종으로 판단되는 염새우류 5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수어천 하구역은 넓은 갈밭과 수변 초지가 발달해 있고 기수역 고유의 저서무척추 동물상이 잘 보존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진도 동석산서 등산객 추락 부상

10일 오전 11시40분께 진도군 지산면 하심동 마을 인근 동석산(해발 240m)을 오르던 위모(52·광주시 북구 문흥동)씨 등 광주 S산악회원 2명이 4~5m 아래로 추락,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위씨 등이 다른 산악회원 30여 명과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다 등산로에 설치된 로프가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낙태·성병 등 진료기록 공개거부 동의서 써라”

나우침  
6998  
김홍우

## 병·의원들 환자 유도해 ‘탈세’

국세청에 ‘수입금 노출 막기’ 활용

환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손해

최근 생리불순으로 광주시 서구 M산부인과와 비뇨기과 부인과를 찾은 회사원 최모(여·25)씨는 “진료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병원 직원이 “연말정산 간소화”로 진료 기록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데, 동의서를 작성하면 보내지 않겠다”고 설득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일부 의료기관들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환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조치를 탈세의 한 수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자의 인권 침해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의료법 제19조) 위배를 이유로 의료비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남구

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의원이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환자는 밸류를 팔아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의 설득으로 ‘정보 미제출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현재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초과 분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세청 측은 그러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제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병·의원에 의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름과 진료비 뿐이기 때문이다.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많은 치과(51.1%)·한의원(37.9%) 등 프라이버시와 거의 상관이 없는 곳으로, ‘동의서’ 작성 유도는 결국 수입 금액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환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선 공인 인증서·주민등록번호가 동시에 필요해 타인의 접속이 거의 불가능한데, 어느 병 때문에 어떤 병원에 다녀왔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며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병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전의 경우 개인이 각 병·의원에서 진료 영수증을 받아 의료비 공제를 신청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연말정산부터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의료비 공제를 자동처리하게 된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대낮 음주운전’ 단속 10일 오후 3시께 광주시 광산구 등립동 신동마을 입구에서 경찰이 ‘대낮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연말 연시를 맞아 내년 1월31일까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나들이객이 북적이는 유원지, 무등산 등 등산로 주변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 납치됐던孔씨 함구 일관

## PJ파 중간보스 검거 주력

## 건설사주 납치사건 수사

광주 중견 건설업체 사주 납치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은 피해자인 공모(47)씨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인 이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결찰이 ‘증거 보강’을 이유로 재지휘를 내리자 공씨 측근들을 통해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협박 내용 등을 진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씨는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달 21일 밤 무등산 인근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잠적했으며,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공씨와의 접촉을 시도하면서 조사에 응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며 “공씨가 범인 확인 등 구체적인 증언을 해줘야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형사 20명을 서울 등지에 급파, 납치에 가담한 용의자 중 신원이 확인된 K씨 등 3명과 납치 배후자로 추정한 국제 PJ파 중간보스인 J씨를 붙잡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J씨 등을 검거하면 납치에 사용된 봉고차를 운전한 이씨에 대한 사전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부부싸움 40대 운전사

## 아내 폭행 후 투신 자살

10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K아파트 화단에 이 아파트에 사는 트럭 운전사 이모(46)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신을 중인 것을 주민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 출혈 등으로 숨졌고, 부인 성모(41)씨는 이마 등에 큰 부상을 입은 채 집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강에 부인을 흉기로 때린 후 자신은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인터넷 강도 공모…불심검문에 ‘덜미’

○…광주 북부경찰은 10일 인터넷 챕팅 사이트 중 “먹고 살기 힘들다. 차털이나 하자”고 공모, 강도 짓에 나선 정모(25·고흥군 과역면)씨를 강도에비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홍모(25·오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

○…정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에서 공범을 모은 후, 광주 상무지구·담양 우시장·골프연습장 주변을 돌며 돈 많은 자영업자·여성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속칭 대포차와 대포폰·흉기·장갑·결박끈 등도 준비했다는 것.

○…이들은 지난 7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K모텔 인근에 차 시동을 켜놓고 귀가하던 여성을 기다리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현장에서 정씨만 검거됐다고. /이승배기자 lsb54@

# Cell Banking

생명은 간접할 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해두다가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되는 1:1 맞춤형의 사용입니다.

제작처: 한국은행 | 전문가: 김민수 | 전화: 031-3473-1479

천만인을 위한 기쁨 / 훗은 기쁨 / – 캔스모

맞춤가발입니다!

제작처: 캔스모 | 전문가: 김민수 | 전화: 062-678-3545



김민수  
제작처  
전문가



김민수  
제작처  
전문가